

# 기독교의 이상인간형\*

— 육체적 순교와 영적 순교의 개념을 중심으로 —

이진구\*\*

- I. 서론
- II. '하느님의 백성'과 '거룩한 백성'
- III. 순교자 성인의 길: 육체적 순교
- IV. 수도자 성인의 길: 영적 순교
- V. 결론

## I. 서론

기독교인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즉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며,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한 적극적 응답이 기독교인의 신앙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신앙 대상이다.

이처럼 예수는 기독교인의 신앙 대상이지만 이와 동시에 모든 기독교인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이상적 인격의 모형이기도 하다. 즉 기독교인은 예수를 신앙의 모델이자 표본으로 삼는다. 예수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고 실천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의무로 간주되는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예수가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리스도 닮기'(Imitation of Christ) 혹은 '그리스도 따르기'(following of Christ)가 가장 핵심적인 신앙적 신학적 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로 여겨지는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대 종교학과 강사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고난의 십자가’와 목숨을 내어주는 ‘자기희생’의 각오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고난의 길 즉 ‘예수 닮기’를 가장 철저히 실천한 사람을 ‘성인’(saint)이라고 부른다. ‘성인’은 예수의 삶을 가장 가깝게 본받은 사람으로 ‘공인된’ 존재이다. 따라서 ‘성인’에게는 일반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와 지위와 부여된다. 평범한 신자가 지니지 못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웅적인 덕목을 성취한 자가 ‘성인’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성인이 훨씬 가까운 존재이다.<sup>1)</sup> 그리스도는 어디까지나 신적 존재이지만 ‘성인’은 같은 인간에 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범한 기독교인은 ‘성인의 길’을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 닮기’를 실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성인’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의 이상인간형이 지닌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성인’에 포함되는 인물의 범위와 성격이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성격 변화는 기독교의 국교화(4세기) 시기를 분수령으로 하고 있다. 국교화 이전의 초대 교회에서는 피를 흘리는 ‘육체적 순교’(physical martyrdom)가 성인 배출의 주요한 원천이었다면, 국교화 이후에는 피를 흘리지 않는 ‘영적 순교’(spiritual martyrdom)가 성인 배출의 주요 통로가 되었다.<sup>2)</sup>

논의의 순서는 먼저 히브리 성서(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나타난 ‘거룩한 백성’과 ‘하느님의 백성’ 개념을 검토한다. 이 두 개념은 기독교의 ‘성인’ 개념 형성의 전사(前史)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의 국교화 이전의 대표적 성인 유형에 속하는 순교자 성인의 성격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국교화 이후 대표적 성인 유형에 속하는 수도자 성인의 성격을 검토한다.

1) 이는 유교와 대승불교에서 성인(聖人)과 붓다를 인간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이상적 인간상으로 설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군자(君子)와 보살(菩薩)을 ‘매개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구조이다.

2) 물론 16세기의 종교개혁을 계기로 등장한 개신교 진영이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의 ‘성인공경’ 제도를 일종의 ‘우상숭배’로 규정하면서 이 제도를 폐지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개신교가 ‘성인공경’ 제도를 폐지하였지만 ‘성인’의 반열에 드는 인물들에 대한 존경심마저 거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사이언스(Christian Science)나 몰몬교(Mormonism)와 같은 일부 교파는 창시자를 ‘성인’으로 간주한다. Robert L Cohn, “sainthood”, *ER.*, Vol. 13, p.2.

## II. '하느님의 백성'과 '거룩한 백성'

구약에서 '거룩함'(holiness)이라는 용어는 항상 유일신 야훼와 관련되어 사용된다. <창세기>에 의하면 창조주 야훼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이 날을 일상의 시간과 구별되는 '거룩한 날'로 선포하였다. 이 특별한 시간이 바로 안식일(sabbath)<sup>3)</sup>이며, 이 날에는 일상의 '세속적' 노동이 금지된다. 이처럼 구약 전통에서는 일상의 시간과 구별되는 특정한 '거룩함의 시간'이 야훼와 관련되어 설정되어 있다.

구약에서는 시간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장소 및 사물과 관련해서도 '거룩함'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야훼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항상 거룩한 곳으로 간주된다. 대표적인 예는 예언자 모세가 야훼를 만나던 장소이다. <출애굽기>에서 야훼는 모세에게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분명하게 선포한다.<sup>4)</sup> 이외에도 구약에서는 지성소(至聖所), 성도(聖都), 성지(聖地), 성물(聖物) 등의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야훼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장소이거나 사물이다.

이처럼 구약은 모든 거룩함의 원천을 항상 야훼에서 찾고 있다. 예언자 이사야가 연기로 가득한 성전에서 들었던 천사의 외침은 거룩함의 원천이 야훼에게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sup>5)</sup>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미사 중에 들려오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주 천주"라는 노래는 이와 동일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구약에서 '거룩함'의 개념은 특히 야훼와 히브리 민족의 관계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야훼가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거룩함'의 개념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야훼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라. ...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야말로 못 민족 가운데서 내 것이

3)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창세기> 2:3.

4)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5.

5) <이사야> 5:20.

되리라. 온 세계가 나의 것이 아니냐? 너희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sup>6)</sup>

여기서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제의 직책을 맡은 ‘거룩한 백성’으로 선포하고 있다. 한 나라의 백성 전체가 거룩하다는 속성을 부여받고 있는 셈이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타민족을 거룩하게 해야 할 임무를 지니게 되는데, 이는 사제가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것이 야훼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본질’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와 맺은 계약을 지키는 주요 도구는 ‘율법’이다. 즉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와의 계약을 지킬 수 있다. 구약 특히 <레위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행동 규범과 금기 사항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한 ‘율법’ 조항인 셈이다. 이러한 정결 규정을 제시하고 야훼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sup>7)</sup> 이처럼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 ‘야훼의 거룩함’을 본받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상 과제로 간주된다.

그러나 ‘율법’의 준수가 형식화되자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외적 정결’보다는 ‘내적 정결’을 강조하였다.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정의와 선을 자기 영혼 안에 반영하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반역이야말로 중대한 죄라고 선포하였다. 제사 규정의 형식적 준수보다는 내적인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거룩한 사람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야훼여! 당신 장막에서 살 자 누구입니까?  
당신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허물없이 정직하게 살며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고  
남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해치지 않고  
친지를 모욕하지 않으며,  
야훼 눈밖에 난 자를 알아보되

6) <출애굽기> 19:3-6.

7) <레위기> 11:45; 그리고 모세에게 또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 야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레위기> 19:2.

야훼 두려워하는 이를 높이는 사람,  
손해를 보아도 맹세를 지키고,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sup>8)</sup>

지금까지 보았듯이, 고대 유대교 전통에서는 ‘거룩함’의 원천이 인간이 아니라 유일신 야훼에게 있으며, 그 거룩함을 실현하는 방편이 ‘율법’의 준수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야훼의 백성’ 즉 ‘거룩한 백성’ 개념은 유대 민족과 ‘율법’이라는 생물학적 제의적 특성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초대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토대를 마련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교의 ‘거룩한 백성’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단지 여기에 새로운 해석을 가하였을 뿐이다.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의하여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하였다. ‘율법’과 생물학적 한계를 지닌 과거의 ‘거룩한 백성’을 대신하여 이제 새로운 ‘거룩한 백성’이 등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에 근거한 ‘교회’가 바로 이러한 새로운 ‘거룩한 백성’이자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sup>9)</sup>

따라서 교회의 입문의례인 ‘세례’를 통하여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거룩한 백성’이 된다. 바울은 이들을 ‘새로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으며, 이때부터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기독교인은 ‘하느님의 백성’(people of God) 즉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구성하는 이러한 기독교인 전체를 ‘성인’(saint) 혹은 ‘성도’(saint)라고 불렀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 일반을 ‘성인’ 혹은 ‘성도’라고 부른다. 이것이 넓은 의미의 ‘성인’ 개념이다.<sup>10)</sup>

8) <시편> 15:1-5.

9) <갈라디아서> 3:28.

10) 매년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All Saints’ Day)에 기억하는 성인은 넓은 의미의 성인 중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이들이다. 윤민구, “성인”,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7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4753쪽.

### Ⅲ. 순교자 성인의 길: 육체적 순교

이와 달리 좁은 의미 혹은 본래적 의미의 '성인' 개념은 바울 시대 이후에 등장하였다. 초대 교인들은 평범한 신자와 달리 영웅적 덕목을 실천하고 비범한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된 사람들에게 대하여 특별히 '성인'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사도들(the apostles), 세례 요한, 성가족(the Holy Family,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하여 자연스럽게 성인으로 간주되었다. 교회의 위계제도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각 교구별로 주교들이 독자적으로 성인을 추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170년 교황 알렉산더 3세는 성인을 추대하는 시성(諡聖, canonization) 작업은 교황청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선언하였다.<sup>11)</sup>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러한 좁은 의미의 성인 개념이 등장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은 순교자의 출현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기독교의 초기 역사는 로마에 의한 '박해'와 기독교인의 '순교'로 점철되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놓는 자들에게서 비범한 힘을 느끼고, 그들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순교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등장하고 순교자에 대한 교회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실천이 등장하였다. '좁은 의미'의 성인 개념은 바로 이러한 순교 담론의 형성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오늘날 사용되는 '순교'(martyrdom)라고 하는 용어는 그리스어 '마르투리온'에서 유래하였다. 이 용어는 본래 '증언'(testimony)이나 '증인'(witness)을 의미하였지만, 기독교 용어로 채택되면서 커다란 의미 변화를 겪었다. 즉 진리를 증거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려 목숨을 바치는 행위'를 지칭하게 된 것이다.<sup>12)</sup> 그리고 이러한 비범한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들에 대하여 '성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11) Caroline Williams, *Saints: Their Cults and Origins*, St. Martin's Press, 1980. p.8.

12) 가톨릭 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순교자의 조건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육체적 생명이 희생되어 참으로 죽음을 당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진리에 대한 중요 때문에 죽음이 부과된 경우이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지키려고 기꺼이 죽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조건들에 대하여 경직되고 적합한 해석만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동호, 「윤리신학에서의 순교」, 『한국 가톨릭 대사전』(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5156-57쪽.

기독교사에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파노의 죽음을 최초의 순교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sup>13)</sup> 예수 자신이 순교의 원형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성자 예수는 성부 하느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준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예수의 죽음을 순교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제시되고 있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서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sup>14)</sup>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sup>15)</sup>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sup>16)</sup>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 주었다.”<sup>17)</sup>

기독교 전통은 이러한 구절들에 근거하여 예수를 최초의 순교자, 스테파노를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로 간주한다. 순교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면서부터 이다. 로마 치하에서 순교한 안티오키아의 주교 이냐시오(35-107)는 당시 순교자들이 지니고 있던 의식과 태도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가 순교하기 직전 신자들에게 남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내가 맹수의 밥이 되도록 빌어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하느님께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밀입니다. 짐승의 이빨을 거쳐야만 그리스도의 좋은 빵이 됩니다. … 세상이 내 육체를 보지 못할 때 비로소 나는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저 사나운 짐승의 이빨을 거쳐 하느님께 희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 나는 지금 옥중에서 아무 것도 원치 않고 오직 순교 준비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마지막 순간인 듯 합니다. … 불도 좋고 십자가도 좋고 맹수와

13) <사도행전> 7장.

14) <요한복음> 10:18.

15) <요한복음> 18:37.

16) <마태복음> 20:28.

17) <마태복음> 16:21.

의 투쟁도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갈 수만 있다면 어떤 잔인한 장난이라도 좋습니다.<sup>18)</sup>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이나시오가 순교를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제자직(discipleship)의 절정’이자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완전한 희생제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의연히 죽음에 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9)</sup>

또한 당시 순교는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최고의 이상인 ‘애덕(愛德, caritas)의 완성’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타인을 위한 희생을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선언한 예수의 가르침<sup>20)</sup>에 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순교자들은 예수의 수난 속에 인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무한한 사랑이 현존한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즉 예수의 수난을 적극적으로 본받음으로써 ‘애덕’을 실천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순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기희생에 동참하는 행위이지만 목숨을 버린다는 근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다. 당시 순교자들도 단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자신들의 힘이나 덕 또는 인간적 열의나 영웅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자신들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총이 충만할 때 순교가 가능하다고 고백하였다. 즉 그리스도가 자신들 안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도와 주고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순교가 가져오는 결실 및 효과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등장하였다. 초기 교회 시절부터 순교는 죄를 씻어주는 또 하나의 세례로 간주되었다. 테르툴리아노(160-223)는 “피의 세례는 물의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그것을 대신하며, 세례성사의 은총을 잃은 이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였으며, 오리게네스(?-254)는 순교를 ‘제2의 세례’라고 불렀다.<sup>21)</sup> 즉 ‘피의 세례’인 순교는 ‘물의 세례’를 보완하고 완성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순교는 죄를 씻겨주는 역할만이 아니라 순교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며, 나아가 순교자에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자는

18) 자크 두에 지음, 『성인이란 무엇인가?』(가톨릭출판사, 1994), 33-34쪽.

19) 특히 이나시오는 가현설(docetism)에 대항하기 위해 순교자가 겪는 육체적 고통을 더욱 강조하였는데 순교자의 육체적 고통은 살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상통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동호, “윤리신학에서의 순교”,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8권, 2001, 5157쪽.

20)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13.

21) 박재만, 『영성신학에서의 순교』,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8권, 5161-62쪽.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의 지성소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어졌다.<sup>22)</sup> 따라서 초대 교회 시절부터 순교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하나님의 운동선수,<sup>23)</sup> 신앙의 수호자, 사탄과의 투쟁자, 신앙의 옹호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자 등으로 불리었다.<sup>24)</sup>

이처럼 순교는 기독교인의 궁극적 목표인 '구원'과 직결되어 이해되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 시절에는 순교에 대한 열정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일부 '광적인' 신자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기 위해 행한 '비정상적' 행동은 교부들에 의해 만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시대적 요인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초대 교회 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리라는 기대가 기독교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임박한 종말이 기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하에서 순교의 열정이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대 교회에서 성인의 반열에 오른 대부분의 사람은 순교자이다.

#### IV. 수도자 성인의 길: 영적 순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된 이후에는 박해 시대의 산물인 '피흘림의 순교'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소수자의 종교로서 혹독한 탄압의 대상이었던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 위에 군림하는 지배 종교로 급변한 상황에서 기독교인의 순교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순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오리게네스는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영적 순교'(spiritual martyrdom)라고 불렀다.<sup>25)</sup> 그에 의하면 순교의 필수적 요소는 육체적 죽음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의 방향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쪽으로 돌리는

22) 정용석, 「초대 기독교 영성」, 『영성과 여성신학』(한국여성신학회 엮음, 대한기독교서회, 1999), 155쪽.

23) 이 용어는 바울의 용어이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꾸준히 달리는 육상 선수처럼 자신을 단련시켜야 하는 영적인 운동선수이다. <고린도전서> 9:24-27.

24) 정용석(1999), 앞의 책, 153쪽.

25)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못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박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영적 순교자이다." 정용석(1999), 앞의 글, 156쪽.

것이다. 즉 양심의 증언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피흘릴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이미 순교자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양심의 순교’(martyrdom of conscience)라고 불렀다. 나아가 그는 ‘매일의 순교’(daily martyrdom)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단지 한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 당하거나 죽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온 생애를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싶다. 현세의 삶은 짧으며 박해의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그러나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sup>26)</sup>

즉 참된 순교의 본질은 매일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는데 있다는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의 글레멘스도 자기 욕구에 대한 포기는 실제의 피흘림과 동등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치프리아노는 예기치 않은 방해 때문에 순교를 하려다 좌절된 경우도 이미 순교의 화환을 받은 것으로 간주했다. 올림푸스의 주교 메토디오(?-311)는 인내심을 갖고 동정을 간직한 처녀를 순교자의 영예에 비견되는 것으로 보았고,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오(190-264)는 전염병 환자를 돌보다 죽은 경우도 순교자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위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백색 순교’(white martyrdom)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신의 욕정을 참으며 끊임없이 보속하는 것을 ‘녹색 순교’(green martyrdom)라고 불렀다.<sup>27)</sup>

이처럼 다양한 순교 개념이 등장한 것은 박해 시대의 순교의 교의가 은자적이고 수도사적인 삶의 교의로 바뀌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이제 ‘순교’는 신앙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보다는 ‘금욕주의’에 근거한 수도생활이나 ‘영적 완성’이라는 가르침으로 그 의미가 변화된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피흘림의 순교’ 시대가 가고 ‘피흘림 없는 순교’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sup>28)</sup>

이러한 ‘영적 순교’ 담론의 확산은 교회의 존재방식의 역사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4세기에 접어들어 국가권력의 절대적 지지와 비호를 받게 된 교회는 로마 제국의 법적 정치적 제도를 수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점차 관료화되고 제도화된 교회로 변모하였다. 교회의 이러한 제도화는 역동적인 종교체형과 고원

26) 정용석(1999), 앞의 글, 156쪽.

27) 이동호(2001), 앞의 글, 5158쪽.

28) 물론 반그리스도교적 지역이나 비그리스도교 지역 등과 같은 선교 지역에서는 여전히 피흘림의 순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 종교적 이상을 열렬하게 추구하는 자들을 교회로부터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막을 무대로 하는 은수자(隱修者, hermit) 전통이 등장하였다.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티나의 사막 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은수자들은 외딴 곳에서 홀로 금욕과 기도에 힘썼다. 이들은 단식, 철야기도, 육체노동 등을 통해 신앙을 강화하고 쇠신하고자 하였으며, 고립 생활을 통하여 '정욕'(concupiscentia)을 완전히 제어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개인적 고립생활 위주의 은수자 전통은 점차 약화되고 공동 생활을 원칙으로 하는 수도원 전통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수도회는 교황청의 인가를 얻어 공식단체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수도회에 속한 수사(修士)들은 각각의 수도회 규칙에 따라 청빈, 정결, 순종 등의 서원(誓願)을 한 다음, 그리스도와 닮은 생활을 함으로써 완덕(完德)을 쌓는데 노력한다. 즉, 자기와 모든 사람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는 생활공동체를 영위한다.

순교자 전통이 예수를 순교자의 모델로 보듯이, 수도자 전통 역시 예수를 수도자의 모델로 본다. 복음서는 예수를 이미 이상적인 수도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sup>29)</sup>라는 말은 완벽한 수도사로서의 예수 상을 만들어 내었다. 그 이외에도 복음서에는 예수가 자신을 부정하고 세상을 거부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고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이야기,<sup>30)</sup>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시도에 대하여 거부한 이야기,<sup>31)</sup> 십자가 짊어지기를 거부하는 베드로에 대한 질책<sup>32)</sup> 등에서 이상적 수도자의 모습이 엿보이고 있다.

교회가 확장되면서 예수의 윤리적 요구는 두 가지로 구별되어 수용되었다. 하나는 모든 기독교인이 받아들여 지켜야 할 '명령 사항(commandments)'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완덕으로의 권면(counsels of perfection)'이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수도사나 수도승의 생활에서만 추구되었다.<sup>33)</sup> <카라마조프의 형제>에 나오는 조시마 장로의 모습은 비잔틴 교회와 로마 교회 수도사의 이상적 상을 구현한 것이다. 그 이상적 상은 장로

29) <마가복음> 8:34.

30) <마태복음> 4:8-10.

31) <요한복음> 6:15.

32) <마태복음> 16:23.

33) 야슬로브 펠리칸, 『예수의 역사 2000년』(동연, 1999), 193쪽.

조시마 안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오직 기도만으로 살아가는 이 고독하고 온유한 수도사들로부터 러시아의 구원이 이제 올 것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놀랄 것인가? 이 사람들은 진실로 '그 날과 그때를 위해 그 달과 그 해를 위해' 평화와 정적 중에서 준비해 온 사람들이다. 한편 그들은 고독한 가운데 옛 조상들, 사도들, 순교자들의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 안에 거하면서 청결하고 더러움 없는 그리스도 상을 계속 지니고 있었다. 그때가 온다면 그들은 이 세상의 떠도는 신조들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 상을 보여 줄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생각이다. 그별은 동방으로부터 솟아오른 것이다.<sup>34)</sup>

'수도사 그리스도'는 수도원의 편지나 문서, 중세 제단의 양식, 또는 이러한 수도원의 전통을 근대적으로 각색한 작품들에 자주 등장하는 테마가 되었다. 20세기에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예는 '그리스도의 평화(Pax Christi)'라는 제목의 조각상이다. 이 조각상의 그리스도는 헐겁게 늘어진 고깔 달린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는 베네딕트 수도회 수도사의 복장이다.<sup>35)</sup>

이처럼 예수를 완전한 수도사의 모델로 간주한 수도사들은 '수덕적 영성'(ascetic spirituality)의 추구에 전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수도원의 영성은 '수덕주의'(修德主義, asceticism)로 나타났다. '수덕주의'는 극기(克己) 또는 자기부정을 통하여 자신을 정화시키고 덕의 실천, 기도와 관조의 삶을 통하여 신에 접근하고 궁극적으로 신과의 합일을 이루려는 노력이다.<sup>36)</sup> 이러한 수덕주의의 실천에서는 기도와 금식이 일차적으로 요청되지만 특히 중시되는 것은 덕의 축적이다. 이는 수도원의 규칙으로 구체화된다.

당시 거의 모든 수도원은 수도생활의 지침이 되는 규칙서를 제정하여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수도원은 청빈, 정결, 순명(順命)을 수도사 후보자의 필수적 서약으로 삼고 있다. 이 서약은 그리스도의 삶을 모델로 한 것이다. 즉 청빈과 정결과 순명의 삶이 스승 예수에게서 가장 철저하게 구현되었다고 보고 이를 본받고자 한 것이다.

34) 펠리칸(1999), 앞의 책, 195-96쪽.

35) 펠리칸(1994), 앞의 책, 187쪽.

36) 정용석(1999), 앞의 글, 157쪽.

## 1. 청빈

먼저 청빈(가난, poverty)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특징이었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려는 부자 청년에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마태 19:21)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파견되는 제자들에게도 어떠한 재산도 지니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즉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어떠한 음식이나 가방이나 돈도 지녀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초대 교회 시절에는 신자들 사이에 일종의 자발적인 원시공산제가 실천되고 있었다.<sup>37)</sup>

수도원 제도가 등장하면서 청빈은 모든 수도원의 규칙서에서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었다. 이때 청빈은 개인적 무소유와 집단적 공동 소유를 의미하였다. 즉 개인 소유의 포기와 수도원에 의한 공동 소유를 뜻하였다. 그리고 공동 소유는 공동 분배를 전제하고 있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서에 이러한 원칙과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모든 것은 모든 이에게 공동소유가 되어야 하며, 누구라도 무엇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줄 것이다. 적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많이 필요한 사람은 연약함에 대해 겸손하고 자비를 받는데 대해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sup>38)</sup>

이러한 청빈의 덕목과 공유 재산 제도는 물질적 욕망의 포기를 통하여 영적 완성의 길을 추구하게끔 하는 주요한 신앙적 제도적 장치로 간주되었다. 즉 청빈의 덕목은 이기적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지름길로 여겨졌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수도사들이 선택한 가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 특징을 반영하며, 나아가 그리스도(교회의 머리)와 그리스도인(교회의 지체)을 서로 더욱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끈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sup>39)</sup>

성 프란시스코(1181?-1226)는 가난과 청빈의 덕목을 가지고 당시의 부패한 교

37) “그 많은 신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저마다 쓸 만큼 나누어 받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4:32, 35.

38) 이형우 엮음, 『성 베네딕도 수도 규칙: 교부문헌총서 5』(분도출판사, 1991), 참조.

39) 아돌라르 줌켈레 해설, 이형우 옮김,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분도출판사, 1990), 42-49쪽.

회를 쇠신하는 표지로 삼고자 하였다. 그의 수도원 규칙서는 제자들을 ‘지상에서  
는 이방인이고 나그네’로 규정하였으며 재산은 그 소유자를 사로잡는 두려운 힘이  
므로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프란시스코에 관한 초기 전기는 그가 청빈의 정  
신과 삶을 실천하는데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프란시스코가 청빈을 찾고자 숲을 거닐고 있을 때였다. 그는 우연히 한 여자  
를 만났다. 그 여자가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냐고 물었다. “나는 청빈을 찾아  
서 왔습니다. 나는 부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청빈을 발견할 때까지 나는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고 그가 대답하자, 그녀는 자기 이름이 ‘청빈’(Paupertas)  
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신부로 맞이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 결혼식을 집행하였다.<sup>40)</sup>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청빈의 정신으로 자연을 바라볼 것을 주장했다. 즉 하느님  
의 피조물인 자연에 대하여 소유의 욕망을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할 것을 가  
르쳤다.<sup>41)</sup> 그렇게 될 때 자연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영성의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2. 정결

예수는 독신으로 일생을 마쳤다. 그리고 “또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sup>42)</sup>고 말한바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 중에는 예수의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스스로 거세한 사  
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나 바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초대 교부들은 결혼 제  
도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결혼도 좋지만 순결은 더욱 좋다는 입장이 지배  
적이었다. 따라서 순결의 덕목은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는 ‘명령사항’이 아니라 ‘완  
덕으로의 권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순결의 종교적 윤리적 가치를 성적 절제 자체에서 찾지 않았  
다. 먼저 그는 순결이 하느님께 봉헌된 것이기에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순결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의 순결이며, “몸의 순결은 그 그릇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순결

40) 야로슬라프 펠리칸(1999), 앞의 책, 228-29쪽.

41) 루이 라벨, 『성인들의 세계』(가톨릭출판사, 1992), 66쪽.

42) <마태복음> 19:12.

을 지킴으로써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닮은 영적 생활을 맛볼 수 있으며, 만일 육체가 영혼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것은 더욱더 영혼을 닮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sup>43)</sup>

### 3. 순명

신약에 나타난 예수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하여 철저히 '복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날 밤, 게세마니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행한 인간 예수의 처절한 기도에서 이러한 복종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sup>44)</sup>

하느님에 대한 예수의 이러한 무조건적 순종의 태도는 대부분의 수도원 규칙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정한 수도원 규칙서(제15장)에서는 수도원장에 대한 복종이 하느님에 대한 복종과 관련되어 있다. “너희는 아버지께 하듯 원장에게 순종하여 그에게 합당한 공경을 드림으로써 그분 안에 거하시는 하느님께서 무례를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sup>45)</sup> 물론 이때 수도원장 자신은 이 규칙을 완전히 준수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수도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원장은 타인을 지배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사랑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자신의 직분을 하나의 봉사직으로 삼아야 한다.<sup>46)</sup>

베네딕도 수도 규칙(제5장)에서도 “형제들끼리 서로 복종할 것이며 복종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47)</sup> 이처럼 순종의 덕목은 수도공동체의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핵심적인 일로 간주되었다.

43) 아돌라드 줌켈러 해설(1990), 앞의 책, 101-111쪽.

44) <마태복음> 26:39, 42.

45) 아돌라드 줌켈러 해설(1990), 앞의 책, 147쪽.

46) 아돌라드 줌켈러 해설(1990), 앞의 책, 148-54쪽.

47) Jesus Alvarez Gomez, 『수도생활 역사 I』(성바오로수도회, 2000), 257-262쪽.

지금까지 살펴본 청빈, 정결, 순명의 3가지 서약은 복음삼덕(福音三德)이라고도 불린다. 이 서약들은 인간 삶의 세 가지 측면과 각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청빈 서약은 인간 삶에서 필수적인 물질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정결 서약은 남성과 여성의 상호성의 차원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순명 서약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규명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서약은 각기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철저한 헌신으로 귀결되며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동화되려는 열망 안에서 삼위일체적으로 통일되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서약은 다시 '사랑' 혹은 '애덕'이라는 최고의 덕에 의해 종합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본받으려는 수도자의 마지막 행로는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상적 인간형은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철저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지만 쉽게 좌절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항상 동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그리스도인은 보다 친근하게 다가오는 성인을 모델로 하여 그리스도를 우회적으로 본받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제도적 장치 및 실천이 성인공경(veneration of saints)이다.

성인공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로는 성인 문학과 성인전, 전례력과 성인 축일, 수호성인, 성인 유해 공경, 순례 등 매우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성인의 공덕을 찬미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성인숭배'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인공경이 유일신 신앙과 배치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흠숭지례(欽崇之禮, latria), 성모 마리아에 대한 상경지례(上敬之禮, hyperdulia), 그리고 성인에 대한 공경지례(恭敬之禮, dulia)를 전례 신학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처럼 유일신 신앙 안에 자리잡고 있는 성인공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성인의 길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본받는 자이다. 그런데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보면 성자 그리스도는 다시 성부 하느님을 본받는 존



재이다.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한’ 아들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 예수는 ‘아버지 하느님’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그를 철저히 본받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전통이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상의 중층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하느님-그리스도-성인-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인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인 본받기, 성인의 그리스도 본받기, 그리스도의 하느님 본받기라는 3단계적 구조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적 구조는 다시 압축될 수 있다. 그 압축구조는 인간이 신(하느님)을 본받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신을 본받는다든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하느님 혹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절대자 하느님이 자신을 낮추어 미천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성육신(Incarnation) 신앙에서 출발한다. 성육신은 신의 자기 부정(self-denial)이자 자기 희생(self-sacrifice)이며 자기 비우기(self-emptying)이다. 요컨대 신의 자기 죽음이다. 이를 신의 거룩한 사랑(Agape)이라고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죽음은 인간에 대한 신의 이러한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처럼 신이 인간이 된 이러한 사건을 통해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는 ‘성화’(sanctification)와 ‘완전’(perfection)의 가능성이 확보된 것이다.

인간이 신을 본받는다든 것은 바로 이러한 사건에 나타난 신의 뜻과 사랑을 본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과거의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비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다 철저히 따른 사람일뿐이다. 따라서 성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인을 매개항으로 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이상 인간상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기독교인은 이러한 성인의 길을 따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